

### 한국 첫 우주인 이소연씨 귀국 회견

## “관심·지지 없으면 우주강국 못돼”

“우주에서 10일간 임무 수행하는 동안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이제 연구자로서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응원과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2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한 광주 출신 한국 최초 우주인 이소연(29) 박사는 “귀환 당시 충격으로 아직 통증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것”이라며 이 같은 귀국 소감을 밝혔다.

다음은 이소연 박사와의 일문일답.

-귀환선 착륙과정이 위험했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들었나.

▲정확한 원인은 러시아가 분석 중이라 아직 모르지만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운이 좋았다고 생각한다. 더 많이 경험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런 상황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한다.

-출발 전 ISS에 가면 멋진 말 한마디를 하겠다고 했는데.

▲우주에서 보니 정말 지구가 파랗고 하나였다. 우주에서는 미국과 러시아가 하나가 돼서 움직이고 다같이 노력해서 ISS를 유지한다. 다 같이 하나가 돼서 아름다운 지구를 지켜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우주실험 중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어린이를 위한 교육실험이 가장 재미있고 뜻깊었다. 구현이 쉽지 않거나 눈에 보이는데 카메라로 잡기 어려운 것도 있었다. 물방울 실험이 가장 어려웠다. 물방울이 크면 사고 위험도 있고 물방울 방향을 제어할 수 없어 카메라로



### “귀환시 충격 컸지만 큰 문제는 없었다”

잡기도 어려웠다.

-건강상태는. 우주인을 꿈꾸는 어린이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내려온 뒤 검사를 했는데 엑스선 상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다. 충격이 커서 힘들었던 것 같다. 쉬고 조절하면 나아질 것이다. 어린이들에게는 꿈과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다. 꿈을 이루려면 몸을 건강하게 아끼는 게 중요하고 건강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다.

-이슈였던 부분은.

▲ISS에서도 내려오기 전날 하루 더 있으면 부족한 실험을 더 할 수 있을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그것은 6개월간 머무는

우주인도 마찬가지라고 하더라. 10일을 10년 같이 쓸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

-여성으로서 우주에 다녀온 것이 남다른데.

▲우주인으로서 여자이기 때문에 남자와 달랐던 것은 없다. ISS에 긴 머리가 먼저 필터 역할을 한다는 게 남자와 다르다면 다른 점이다. 함께 귀환한 폐기 윗수 같은 우주인으로서 남성을 능가하는 능력과 카리스마를 지녔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육체적으로 가장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귀환할 때 큰 중력가속도를 받은 것이었고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것은 ISS 화장실 사용 문제였다. 화장실 사용에서 실수하면 다른 남자 우주인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기 때문에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많이 긴장했다.

-연구원으로 어떤 분야에 주력하고 싶은가.

▲우주실험을 분석하고 결과를 이해하는 게 먼저다. 10일간 한 실험에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짧지만 연구자로 살아왔고 이번에도 연구자로 갔기 때문에 그 임무를 충실할 것이다. 다음 우주인에게 조언을 하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앞으로 어떤 조언을 하고 싶은가.

▲우주개발에 조언을 할 전문가가 아니라 신참해가다. 공부하고 연구해야 할 것이 많다. 비록 시작은 늦었지만 탄탄한 기반을 가지고 노력하면 우리도 멋진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정경기자 jwpark@연합뉴스



베이징올림픽 성화 봉송이 시작된 28일 류사오밍 평양 주재 주중 중국 대사가 지난 1982년 뉴델리 아시안게임 권총 7관왕에 빛나는 북한의 '사격 영웅' 서길산 씨에게 봉화를 넘겨주고 있다. /연합뉴스

### 중유학생 성화 봉송 폭력 시위 정부, 中에 ‘강한 유감’ 뜻 전달

정부는 베이징 올림픽 성화 국내 봉송 과정에서 서울 시내 곳곳에서 유학생 등 중국인들이 격렬한 시위를 벌인 것과 관련, 중국 측에 ‘강한 유감’의 뜻을 전달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28일 “이용준 외교부 차관보가 오늘 오전 외교부에서 닝푸쿠이 주한중국대사에게 베이징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희망하지만 전날 일부 중국 청년들이 성화봉송 행사과정에서 과격행동을 한데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닝 대사는 일부 중국 청년들이 과격행동을 하고 이 과정에서 한국 경찰과 기자 등이 부상한데 대해 유감과 위로의 뜻을 표명했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문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외교부에서는 어제 저녁 시위상황을 보고 닝 대사를 초청해 입장을 전달하려 했는데 닝 대사로부터 먼저 연락이 왔다”면서 “외교적으로 ‘강한 유감’을 표명한 것은 ‘강한 의사표명’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닝 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부상자들에게 위로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닝 대사는 이날 이용준 외교통상부 차관보를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어제 저녁에 뒤늦게 (중국인들의 시위로) 부상자가 발생했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어제 성화봉송 행사는 아주 성공적으로 무사히 진행됐다고 생각하며 한국 국민의 이해와 적극적인 환영·지지에 대해 중국 정부는 아주 고맙게 생각한다”면서 “올림픽은 중국이 아닌 전 세계에 속하는 일로 베이징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한국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닝 대사는 이어 “유학생을 포함한 모든 중국인은 한국인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서 “어떤 경우에도 양국 국민이 서운한 마음을 가지지 않도록 양국 정부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 통일 교육 ‘안보·北인권’ 부문 강화

#### 통일부, 정부 대북 정책 기조 반영 계획안 마련

올해 통일 교육 프로그램에서 북핵 문제와 한미동맹 등 안보 관련 내용과 북한 인권실상 등에 대한 내용이 강화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28일 “최근 홍양호 차관 주재로 관련 부처 관계자들과 민간위원 등이 참여하는 통일교육 실무위원회를 열어 현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를 반영한 통일교육 기본 계획안을 새롭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올해 통일교육 기본 계획안은 ▲미래지향적인

통일관 ▲건강한 안보관 ▲균형있는 북한관 등을 3대 목표로 한 것으로, 통일부는 조만간 통일교육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 계획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당국자는 전했다.

이에 따라 대 국민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통일교육원(통일부 산하)은 올해 교육 프로그램에서 북핵 문제와 한미동맹 등 안보 관련 내용과 북한 인권 실상 등에 대한 내용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통

일교육원은 곧 발간할 학교용·사회교육용 통일교육 지침서에도 이 같은 새로운 기조를 반영할 예정이며 감사진도 보수 성향의 안보 전문가를 보강하는 방향으로 재편키로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대북 포용정책 추진 과정에서 북한의 어두운 면을 덜 보여 주고 대북정책의 성과를 강조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그런 점을 바로 잡는다는 차원에서 중립성과 균형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새 통일교육 계획안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연합뉴스

### 中 산동성서 열차 충돌 66명 사망 247명 부상

중국 산동성 성도 지난에서 동쪽으로 70km 떨어진 쯔보시에서 28일 오전 4시41분(현지시간) 열차 충돌사고가 일어나 66명이 숨지고 247명이 부상했다.

부상자 중에는 중상자 51명이 포함돼 사망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부상자 중에는 프랑스인 4명이 포함돼 있고 한명은 위독하다. 이날 사고는 베이징을 출발해 칭다오로 가던 고속 열차 T195호가 사고 지점에서 탈선하면서 마주오던 열차와 충돌해 일어났다. T195호의 탈선 원인은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연합뉴스

국내영교육학 개강 5월 2일

고사 임용시험 불합격 경험없이도 국내영교육학에 자신있게 불합격하겠습니다.

다 국내영고시학반 ☎ 529-0090

SONY BRAVIA

고객감사 大 축제

HDR-SR12

52-3000

52-3100

달양한과

시제·제사상을 차려드립니다

문의전화: 061-383-8283